

섬김: 삶의 이유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35~45
요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찬송	288장(통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16장(통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과의 목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 I. 생각하기

1. 사람들은 왜 높아지고 싶어할까요?

*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게 하고, 인도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대화를 이끌어가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사회에 지배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섬겨주는 곳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을 섬겨주심으로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다른 사람들 위에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누리려는 것은 죄성의 발현이다.

2.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나누어 봅시다.

* 선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등 다양한 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도자는 참가자들의 말을 들은 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글들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말로 이 질문을 마감하고 생각 넓히기로 넘어가면 될 것이다.

✿ II. 생각 넓히기

1.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2.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3.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 III. 생각살기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바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섬겨주셨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그 직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 높이까지 내려가 섬겨야 한다. 직장 상사는 직책 상 아랫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려는 대신에, 그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의 삶이 몸이 벨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

2. 인간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소그룹이 교회나 이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 시간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지금 우리 교회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큰 일, 너무 부담되는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참석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